

도내 교원단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 · 위로 표명

“다시는 이런 참사가 생기지 않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조 등 도내 교원단체들이 지난 29일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성명을 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밤을 지냈다.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며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 잃어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교조 전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전북교총 “유가족 위로, 참사 수습에 최선 다해야”

전북교사노조 “사고 원인 조사, 예방책 마련해 달라”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도 이날 모든 교육자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고 논평을 냈다.

특히 전주 A초등학교 학생 일가족을 비롯한 도내 6명의 희생자 소식을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에 전북교총은 “정부와 지자체, 여·아는 재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사고 수습과 더불어 함께하는 유가족을 보듬고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해 두 번 다시 우리 사회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도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회복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생존한 두 명의 승무원의 심리적인 충격과 상해도 깊게 공감한다”며 “생존자들이 이번 사고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안정과 회복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모든 관련 기관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여객기 참사 희생자 분향소 설치

전북교육청, 본청 로비에... 국가 애도기간 동안 조문 받기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 2일 열리는 시무식에 공연 등 문화행사 대신 피해자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여객기 참사로 도내 학생이 참변을 당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국가애도기간 동안 분향소 운영과 조기 계양 등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기로 했다.



전북대학교 한강 박사과정생과 정설보 박사과정생이 최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한국기초조형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및 초대작품전'에서 최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일디자인학과 김윤규 교수, 디자인제조학과 정설보 박사과정, 미술학과 한강 박사과정, 미술학과 엄혁용 교수)

한국기초조형학회 ‘최우수발표논문상’

전북대 미술학과 한강 · 디자인제조공학과 정설보 박사과정생

전북대학교 한강 박사과정생(미술학과, 지도교수 엄혁용)과 정설보 박사과정생(디자인제조공학과, 지도교수 김윤규)이 최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한국기초조형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및 초대작품전'에서 최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100편 이상의 구두 및 포스터 논문과, 400여 작품이 출품됐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미국, 호주, 스위스 등 10여 개국의 연구자와 예술가들이 참가했다.

이에 한강 박사과정생은 “기억의 예술에서 기록의 예술로: 연구자의 최근작 ‘개념을 중심으로 예술에서 그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확정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예술이 개인적 경험과 집단적 소통을 매개로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연구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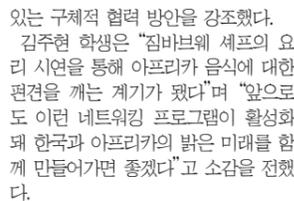
청년 단체 기금 모금 장벽 극복방안 제시

전북대 김주현 학생 등, 한-아프리카 청년포럼 참석

전북대학교 프랑수아프리카학과 남주희 · 김주현 학생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청년포럼’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두 학생은 알제리에서 열린 ‘범아프리카 청년포럼’에도 참가한 바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청년포럼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요리하다’를 주제로 한-아프리카재단, 교육부, KOICA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서는 국제기구 진출 사례와 방법, 범아프리카 청년포럼 참가자들의 경험담 공유, 협력 방안 발표 등이 진행됐다. 또한 한-아프리카 재단 김영재 이사장의 축사, 차바 루완야 주한 탄자니아 대사 부인의 기조 연설, 짐바브웨 출신 셰프 니콜라 카고로의 아프리카 비건 요리 시연이 이어졌다.

이에 김주현 학생은 범아프리카 청년포럼 참가 세션인 ‘교육, 건강 및 웰빙, 청년 역량 강화’를 요약 발표하며, 청년 단체 기금 모금 장벽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이니셔티브 개발, 자립 교육과 모니터링, 청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청년 단체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김주현 학생은 “짐바브웨 셰프의 요리 시연을 통해 아프리카 음식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한국과 아프리카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주희 학생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국제기구 취업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아프리카와 한국 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상호간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찾습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제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적극행정으로 일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별하기로 했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원·교육전문직업, 5급 이상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기관 또는 부서 등 18명(팀) 이내에서 선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규제혁신, 민원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협업, 행정효율 향상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달성한 사례를 내년 1월 15일까지 공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범정부 경진대회, 교육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사례 및 수상 예정 사례는 새로운 성과가 명확하게 있지 않을 시에는 제출 불가하다.

전북교육청은 제출된 사례에 대해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40%), 수요자 체감도(30%),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20%), 확산 가능성(10%)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내년 2월 중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발되면 등급에 따라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종열 감사관은 “우수사례 발굴로 적극행정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단국대 HUSS사업단, 학술교류 협약 체결

인문사회 융합교육 체제 구축

전주대학교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단장 이용욱, 이하 HUSS사업단)은 지난 27일 단국대학교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단장 장세원, 이하 HUSS사업단)과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을곡기념 도서관 106호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양대학이 함께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를 통해 두 대학은 향후 △공공대학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공동 교육과정 공유 및 공동 운영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대 이용욱 HUSS사업단장은 “인문사회 기반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주대와 단국대가 교류 협정을 맺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교육



전주대학교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지난 27일 단국대학교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과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과 인적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국대 장세원 HUSS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두 대학이 협력해 인문사회 융합교육 체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주관대학 단

위의 협약을 넘어 컨소시엄 간에도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을 통해 3년간 약 9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자원의 디지털 혁신과 미래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융합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기전대 한국어문화교육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주기전대학 국제협력처 한국어문화교육원은 30일 본과 진학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 겨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계절별 도내 우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운영 중인 전주기전대학 국제협력처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손·JOB·GO With JB’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정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도내 취업 전주가 가능한 기업 탐방 및 직



전주기전대학 국제협력처 한국어문화교육원은 30일 본과 진학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 겨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한 베트남인 유학생은 “고향에서 보기 힘든 스키장의 아름다움에서 전북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졸업 후 전북에서의 취업 및 생활을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협력처 강진석 처장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 정착형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 호감도 증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손잡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내 폐교재산

활용사례 · 현황 담다

전북교육청, 활용사례집 발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역 내 폐교재산의 활용사례와 현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폐교 활용을 고민하는 시·군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됐다.

사례집에는 자연·문화 여건과 입지 조건을 활용해 폐교를 교육기관,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전환한 33건의 활용 사례를 담았다.

실제 만성초등학교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군산의 월명초등학교는 청소년자치배움터 자원으로, 이리남중학교는 익산외국어교육센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폐교의 기본정보부터 주변 환경의 장단점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항공자료 사진을 포함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공연장

로비 · 체험공간 ‘새 단장’

국립민속국악원이 공연장 로비와 체험 공간을 새 단장하고, 신기술융합콘텐츠를 통한 전통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이 사업은 전통과 현대를 결합해 관람객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국악의 대중화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국악전시실 ‘춘향마루’에서는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가 관람객을 맞는다. “춘향을 만나니”는 모션 감지 기술과 애니메이션을 결합해 관람객이 춘향가의 서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터랙티브 콘텐츠다.

“춘향을 듣다”는 디지털 테이بل을 활용해 전통 음반과 악기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로, 99번의 역사적 가치와 국악의 깊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대극장 ‘예원당’ 로비는 관람객 중심의 효율적 동선과 현대적 품격을 갖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국악체험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된 ‘흥부마루’는 판소리 <흥부가>를 테마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다.

반개방형 좌식 공간 ‘불부집’은 어린이 관람객을 배려한 아늑한 휴식처로, 가족들이 함께 머물며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뜨락’은 마당과 숲을 테마로 조성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휴식 공간으로,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한다. /장은성 기자